

# “파사현정 위법망구하라”

〈破邪顯正 爲法忘軀〉

## 신흥사, '정화6비구' 성준 선사와 불교정화운동 학술적 재조명

1960년 11월 24일 대법원 인근에는 경찰의 바리케이트가 쳐지고 시위대의 구호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불교정화' '불법에 대처' '승 없다' 등의 피켓을 든 스님들과 '비구승이 빠앗은 사찰을 돌려 달라'고 외치는 스님들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며 서로 평평히 맞섰다.

경찰이 막어진 가운데 비장한 표정의 스님들이 작업복 차림에 모자를 눌러쓴 채 대법원 진입을 시도했다. 이들은 교단정화를 위한 순교단이었다. 경찰의 차단으로 인솔했던 승산 스님과 다수의 스님들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마지막까지 6명의 비구승(문성준·유월탄·정성우·권진정·이도명·김도환)들은 혼신을 다해 결국 대법원에 들어갈 수 있었다.

해방 이후 불교계는 교단정화의 큰물줄기 속에 비구·대처로 분열돼 몸살을 앓았다. 비구·대처 양측의 사찰 소유권 및 점유권에 대한 것은 표면적 갈등이었고, 그 실상은 청정 비구가 당시의 세간법으로 인정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문제였다. 때문에 대법원 판결은

한국불교가 새 생명을 얻느냐, 금지산자가 되느냐의 기로였다.

대법원은 1955년 승려대회를 도출해 내 대책위원 중 대처측 대표를 피고로 삼지 않았다 해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대처측 손을 들어줬다. 판결은 1955년 승려대회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 없이 당사자 적격 여부만이 심의된 채 청정비구의 정체성을 흔들었다. 대처 측에 유리한 판결이 나와 대법원 안에 있던 6명의 비구들은 비장한 표정으로 오후 3시경 2층 대법원정자로 달려갔다. 대법원정실로 이르렀으나 대법원장은 자리에 없었고 공문을 묻는 비서에게 스님들은 '불교를 위하여 순교하기 위해 왔다는 말을 대법원장에게 전해 달라'는 말을 남기고 일제히 칼로 자신의 복부를 갈랐다.

월탄 스님 등은 "불법에 대처승은 없는데 재판에서 세상법으로 그것을 인정받지 못했다 때문에 그를 호소하려 왔다"는 요지의 발언도 했다. 비서실장은 당황하여 기다려 달라고 했으나 이미 바닥에는 스님들의 피가 흥건히

고이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기다리던 대법원장이 아닌 경찰들이 들이닥치며 스님들의 복부에 박힌 칼을 빼고 곤봉으로 마구 구타했다. 폭력으로 강제 진입된 6명의 스님들은 실신하여 들것에 실려 나갔다.

6명 비구스님들의 순교 소식은 전해지면서 조계사에서 단식 중이던 400여명의 비구·비구니들이 일제히 대법원 건물로 들어갔다. 판사들은 뒷문으로 도망쳤고 대법원은 아수라장이 됐다. 출동한 경찰 기마대가 곤봉을 휘두르며 스님들을 강제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스님 353명이 연행되고 24명이 구속됐다. 당시 언론들은 '대법원 난입사건'이라며 대서특필했다.

사건은 법원이 교단정화를 위한 순수한 애증심의 발로였다는 정상작업을 통해 가벼이 처리하면서 수습됐다. 초기에 폭도도 비구를 매도하던 언론도 난입사건의 전말을 상세히 보도하면서 크게 비판적이지 않게 됐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불교를 지탱하는 조계종의 반석이 된 '정화6비구' 사건이다.

2007년 11월 3일 설악산 신흥사(주지·무산) 설립전에서는 당시 6비구로 제2정화운동의 주역이었던 성준 선사 열반 30주기를 기념하는 추모학술세미나가 열렸다. '성준 선사의 생애와 불교정화운동'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는 이강순(서강대 사학과 박사과정)씨가 '신흥사의 사격과 고암 대종사'를, 적멸 스님(동국대 박사)이 '성준선사의 생애와 사상'에 대해, 박부영 국장(불교신문 편집국장)이 '대법원 옥비구 할복 사건 전개과정과 의미'를, 김광식 교수(부원대)가 '제2정화운동과 영축회'를 발표했다.

적멸 스님은 발표문을 통해 성준 선사의 사상을 '엄격주의'와 '위법망구'로 정의했다. 적멸 스님은 성준 선사의 엄격주의에 대해 "성준 선사는 단 한번도 조석예불을 거른 적이 없었으며 시물을 아끼고 공과 사를 분명히 했다. 계율의 엄격성은 나와 남이 따로 없었다"며 성준 선사의 엄격주의는 율사였던 은사 고암 스님의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성준 선사가 일생의 신조로 삼은 '파사현정 위법망구(破邪顯正 爲法忘軀)'가 교단정화에 헌신한 그의 불석신명(不惜身命)한 삶으로 실천됐다는 사실을 통해 '위법망구'함을 보였다.

김광식 교수는 1967년 1월 20일 화계사에서 열린 영축회 창립 준비위원회를 위한 발기취지문이 성준 선사의 이름으로 나왔음과 승산 스님이 성준 선사에게 보낸 서신을 예로 성준 선사가



11월 3일 설악산 신흥사 설립전에서 열린 성준 선사 열반30주기 기념 학술대회. 사진제공-법륜신문

영축회의 주축이었음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어 영축회의 교단정화를 위한 개혁정책들이 주체세력의 이완, 간부진 및 회원의 이탈,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 등으로 중단된 사실을 보이며 그 역사적 의의와 현실의 소통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성준 선사 열반 30주기 추모학술세미나는 불교정화운동의 학술적 재조명이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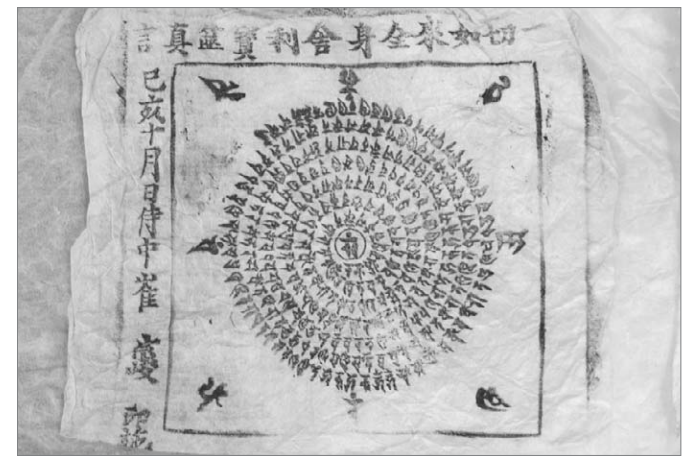
데 의의가 있다. 교계 안팎의 내부외환에 봉안 사법회 등 교단 내 자성정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요즘 "삼악도에 빠진 불교의 앞날을 걱정하며 순교한다"는 정화6비구의 정신이 어떻게 발로될 수 있을지, 청정교단에 쌓인 홍진(紅塵)을 날려버릴 조계종단 개혁의 세기가 주목된다.

조동섭 기자

# 수국사 고려 목아미타불좌상 복장품 공개

11월 10일 제15회 한국미술사연구소 학술대회와 함께 이뤄져

서울 수국사(주지 토진)가 고려시대 목아미타불좌상 발견 후 2년간의 연구성과를 접목하는 복장품 공개감람회를 11월 7일 가졌다. 감람회에서는 경전, 개금발원문, 다라니, 목화승 문지, 사리 장엄구 등 200여종을 선보였다.



수국사 목불의 조성연대를 가늠케 한 복장 다라니(좌측의 '시중 최충준').

토진 스님은 "수차례 화마와 전란 속에서도 훼손 없이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 목불을 통해 수국사에 새로운 중흥의 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2006년 문화재 조사를 하다 고려시대 목불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문명대 교수(동국대)는 "불상의 형식이나 복장 다라니 등으로 볼 때 1239년 월원 심원사에서 조성된 고려시대 불상일 가능성이 크다"며 목불의 조성연대가 고려시대라고 주장했다.

복장품으로 함께 발견된 다라니는 흔히 조성연대 증명에 결정적 단서가 되는 발원문에 비견되는 자료로 '시중 최충준'이라 표기돼 있다. 최충준은 최영 장군의 조부이다. 수국사 목불은 불교조각사 연구

와 함께 복장이 제대로 갖춰진 점에서 문화재로의 의의도 상당하다. 함께 발견된 17종의 경전들은 수차례 개금불사를 거치며 고려, 원, 조선의 시대별 특징을 보여줌으로써 경전 연구에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전망이다.

한편 목불의 학술적 조망도 함께 이뤄졌다. 한국불교미술사학회(회장 문명대)는 11월 10일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제15회

한국미술사연구소 학술대회를 열었다.

'수국사의 사원배치와 불교미술의 재조명'을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수국사 목불 복장품의 전적과 조성 후원자, 조성사찰 등에 대한 학문적 고찰을 통해 2006년 발견된 고려 목아미타불좌상은 물론 수국사 전반에 대한 학문적 담론을 이끌어냈다.

조동섭 기자

# 북한산 고려 불교 유물 500여점 출토

## 삼천사지 탐비구역에서 발견돼

서울역사박물관이 11월 6일 북한산 삼천사지 탐비구역에서 고려 불교 유물 500여점 발굴조사 성과를 발표했다.

2005년 9월부터 시작된 발굴조사를 통해 박물관은 법상종의 주요 연구자료가 될 명문비판과 고려 전기 건물터의 새로 확인했다.

특히 250여 점 가까이 발굴된 명문비판은 고려 전기 법상종 승려인 대지국사 법경의 행적을 조망할 수 있는 중요자료로 학계의 기대가 크다. 법상종은 신라 말기부터 고려 초기까지 융성했던 불교 종파로 그동안 관련 자료 등이 적어 연구에 어려움이 컸다.

한편 이번 발굴조사 성과 공개에는 탐비구역으로 추정



고려석조보살두. 명문비판. 되는 고려 전기 건물터의 확인사실과 청동사리합, 은제 투각철보문장식, 고려석조보살두 등 고려 전·중기의 희귀한 유물 등이 함께 공개됐다. 조동섭 기자

## 학술단신

■ 제47회 추계전국불교학술대회 연다. 한국불교학회(이사장 이평래)는 11월 17일 오전 9시 30분 동국대 문화관에서 추계전국불교학

술대회 및 2007년 정기 평의원 총회를 연다. 불교교리, 불교역사, 응용불교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17명이 발표하는 이번 대회는 중국의 석학 투우열 교수(중국 북경대)가 '중국의 불교와 도교의 교섭'을 주제로 한 특강을 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 2008학년도 전기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

일반대학원

## 1. 모집과정 및 인원

과 정	학 과	전 공	모집인원
석사학위과정	불 교 학 과	◦ 불교학 ◦ 역경학 ◦ 실천불교학(모교사회) ◦ 불교문화재학	30명
	사회복지학과	◦ 사회복지학	
박사학위과정	불 교 학 과	◦ 불교학 ◦ 역경학 ◦ 실천불교학	10명

## 2. 지원자격

- 1)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석사학위 취득 예정자 또는 취득자
- 2)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3)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 승려, 또는 대한불교 종단협의회에서 인정한다 중단 승려
  - ※ 타 전공자도 응시할 수 있음. 단, 입학 후 소정의 학부과정 개설과목(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 4) 7) 주민등록등본 1부
- 8) 컬러사진 5매 제출(가사 수한 사진 3×4cm)
  - ※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제출한 스님은 합격 후, 2008. 2. 28까지 학위수여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3. 전형일정

- 1) 원서교부 : 2007. 10. 29(월) ~ 11. 30(금) 17:00까지(대학원 교학부)
- 2) 원서접수 : 2007. 11. 5(월) ~ 11. 30(금) 17:00까지(대학원 교학부)
- 3) 전 형 일 : 2007. 12. 7(금) 13:00(박사과정), 14:00(석사과정)
- 4) 합격자 발표 : 2007. 12. 12(수)
- 5) 등록 기간 : 2007. 12. 17(월) ~ 12. 24(월)

## 4. 전형방법

- ※ 서류전형 및 면접
- 1) 장소 : 면접 교사실 - 대학본부 2층 세미나실
- 2) 시간 : 2007. 12. 7.(금) 13:00(박사과정), 14:00(석사과정)

## 5. 제출서류

- 1) 입학지원서 (본교 소정양식) 1부.
- 2) 학업 및 연구계획서 (본교 소정양식) 1부
- 3) 석사과정 : 학사학위수여증명서 또는 예정증명서, 박사과정 : 석사학위수여증명서 또는 예정증명서 1부.
- 4) 대학/대학원 전학년 성적증명서 (백분율 성적 기재분) 1부.
- 5) 수계확인서 (조계종 총무원 발급, 3개월 이내) 1부.
- 6) 해당 총무원장의 추천서 (타 종단 스님)
- 7) 9.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 : 415-070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159-1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 교학부
  - 전화 : 031)980-7864(내선 : 7864) / 전송 : 031)980-7863
  - 특전 : 1) 조계종 소속 승려(구족계수지자 및 익년 4월 구족계수지 예정자)는 장학금 혜택이 있음.
  - 2) 각종 교내·외 장학금 지급
  - 3) 전공별 대학원 연구실 제공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

# 진정한 평화와 행복의 길을 찾아-날마다 좋은날

간화선대중화를 위한

## “간화선수행법에 대한 담선법회”

간화선은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수행법으로 청정한 우리의 성품을 밝히게 합니다. 간화선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본래 부처라는 확신과 참나를 찾고자 하는 간절한 발심 그리고 화두에 대한 간절한 의심입니다. 이에 포교원에서는 간화선 대중화를 위하여 화두 참구법과 좌선법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행의 길로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 선지식을 모시고 종단 최초로 담선법회를 개최하오니 사부대중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대중법회 안내 -

- 일시 : 불기2551(2007)년 11월 18일 (일요일) 오후 10.9
- 장소 : 김천 황악산 직지사(제8교구본사 직지사) 단덕전
- 법사 : 해국스님 (전국선원수좌회 회장)
- 진행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문 의 : 포교원 신도국 02)2011-1892-3  
직지사 포교국 054)436-9462

\* 30명 이상 단체 참석할 경우 사전에 연락바랍니다.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